

세계 클래식계의 떠오르는 별, 중국

중국의 차세대 연주가 지안 왕과 윈디 리 내한 공연

노승림 · 음악평론가

3월 한국 클래식 무대의 가장 굵직한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었다.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던 중국 국립 교향악단을 필두로, 3월 11일(평촌아트홀)과 12일(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바흐 무반주 첼로 연주를 시리즈로 펼친 첼리스트 지안 왕,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3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와 협연한 피아니스트 윈디 리가 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이슈를 굵직하게 이어나갔다.

물론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음악적인 발전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의 공식적인 클래식 역사는 '역사'라 부르기 힘들 만큼 짧은 편이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에 클래식 연주가 허용된 것은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의 일이었다. 3월 한국 무대에 등장한 이 세 건의 중국 공연은 중국의 클래식계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또한 그들이 서방의 음악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었다. 첼리스트 지안 왕은 시장 개방 전인 1980년대 미국 음악교육의 대부 아이작 스톤에게 발굴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개척자의 대열에 속하는 반면, 피아니스트 윈디 리는 개방 이후 순수 국내 교육만으로 대망의 폴란드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는 범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으며, 중국 국립 교향악단은 개방 이후 중국 유일의 '국립'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공연장을 드나든 콘서트 고어라면 인식했겠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2006 04 April

개방 이후, 중국 클래식계에 부는 바람

3월 한국 클래식 무대의 가장 굵직한 이슈는 누가 뭐라 해도 '중국'이었다. 3월 4~5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가졌던 중국 국립 교향악단을 필두로, 3월 11일(평촌아트홀)과 12일(서울 호암아트홀)에서 바흐 무반주 첼로 연주를 시리즈로 펼친 첼리스트 지안 왕, 그리고 정명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3월 1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와 협연한 피아니스트 윈디 리가 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이슈를 굵직하게 이어나갔다.

물론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음악적인 발전이 이어지기는 했지만, 중국 본토의 공식적인 클래식 역사는 '역사'라 부르기 힘들 만큼 짧은 편이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에 클래식 연주가 허용된 것은 1990년대 시장 개방 이후의 일이었다. 3월 한국 무대에 등장한 이 세 건의 중국 공연은 중국의 클래식계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고 또한 그들이 서방의 음악을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었다. 첼리스트 지안 왕은 시장 개방 전인 1980년대 미국 음악교육의 대부 아이작 스톤에게 발굴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개척자의 대열에 속하는 반면, 피아니스트 윈디 리는 개방 이후 순수 국내 교육만으로 대망의 폴란드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는 범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성장했으며, 중국 국립 교향악단은 개방 이후 중국 유일의 '국립' 오케스트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랫동안 공연장을 드나든 콘서트 고어라면 인식했겠지만 이들은 모두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 차원의 클래식 보급에 앞장 선, 중국

일단 첫 테이프를 끊은 중국 국립 교향악단을 들여다보면 중국이 클래식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발견할 수 있다. 1956년 공산국가 시절 중앙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창단되었던 유서 깊은

이 오케스트라는 1993년에는 ‘베이징 오케스트라’라는 이름 아래 중국 오케스트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콘서트를 가지기도 했다. 1996년 중국 정부가 이 악단을 중국 유일의 ‘국립’ 오케스트라로 승격시켜준 뒤 통제의 방법을 달리하면서 이들은 본격적인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전까지 연주 곡목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감시했던 정부는 당시 서른한 살에 불과했던 젊은 리 신 차오를 파격적으로 상임지휘자로 영입한 뒤 그에게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 리 신차오는 유학을 나가있던 해외파들을 영입해 단원의 절반을 교체하고 10억 인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오디션으로 추려내어 불러들이는 과감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번 내한공연에 참가한 단원들의 면면이 평균 연령 35세의 젊고 신선한 세대로 구축되어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해외에서 자유롭게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바그너의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던 이들 유학파는 쇼스타코비치를 비롯한 구소련과 동유럽 음악에 한정되어 있던 악단의 레퍼토리를 확실하게 넓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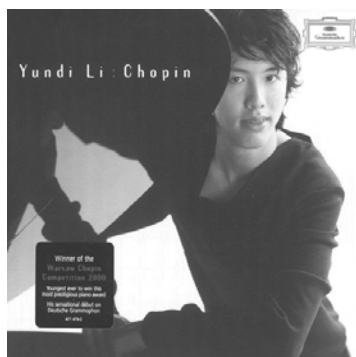
반면 중국 정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를 포기함과 동시에 영화관 건물을 개조한 ‘베이징 음악청’을 그들에게 선사하며 그들이 상주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했다. 이 콘서트홀은 2003년부터 2년간 리노베이션을 거쳐 지금은 ‘중국의 카네기홀’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히 훌륭한 음향을 보유한 베이징의 문화적 자존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번 내한공연에 동행한, 마찬가지로 중국의 젊은 차세대 작곡가이자 음악가협회 이사인 관샤 단장은 이처럼 공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차원의 클래식 보급의 성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클래식을 주도한 이들은 구소련 유학파들이었고, 레퍼토리 또한 소련과 동유럽 음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한 나를 위시해 국제적인 경험을 가진 해외 유학파들이 중국 클래식계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중국에서 인구 2억 명이 넘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열 가구당 1가구가 클래



첼리스트 지안 왕



윈디 리 앨범

첼리스트 지안 왕은 시장 개방 전인 1980년대 미국 음악교육의 대부 아이작 스펜에게 발굴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활동을 시작한, 이른바 개척자의 대열에 속하는 반면, 피아니스트 윈디 리는 개방 이후 순수 국내 교육만으로 대망의 폴란드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는 범세계적인 아티스트

2006 04 April

주목해야 할 점은 단지 지안 왕과 윈디 리가 연주의 완성도와 레퍼토리 측면에서 수백 년 전통의 서양 악단을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중국화' 시키는 데 있다. 중국 국립 교향악단은 서양의 고전 작품들을 연주함과 동시에 작곡가들에게 악단을 위한 새로운 동시대 작품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레퍼토리에 편승시킨다. 해외 순회공연 시에도 반드시 중국 현대 작품을 프로그램에 한 곡씩 추가하고 있다.



랑랑



랑랑 앨범

식을 즐긴다. 전 세계가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에 놀라워하고 있지만, 지금의 중국 정부는 경제 뿐 아니라 문화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양의 전통을 '중국화' 시키는 힘

주목해야 할 점은 단지 이들이 연주의 완성도와 레퍼토리 측면에서 수백 년 전통의 서양 악단을 있는 그대로 답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중국화' 시키는 데 있다. 중국 국립 교향악단은 서양의 고전 작품들을 연주함과 동시에 작곡가들에게 악단을 위한 새로운 동시대 작품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레퍼토리에 편승시킨다. 해외 순회공연 시에도 반드시 중국 현대 작품을 프로그램에 한 곡씩 추가하고 있으며,

이번 서울 무대에서는 단장인 관샤의 제1 교향 서곡이 소개되었다. 끊임없이 악단만을 위한 새로운 작품을 위촉하고 이를 연주해나가는 노력은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베를린 필의 작업과도 동일한 측면이 있다. 하나의 악기로서 동시대의 창작의 계기와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 악단의 또다른 역할이라는 사실은 국내 음악계에도 반성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점이다.

관샤 단장과 리신차오는 또한 연주 해석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서양음악을 연주하지만 중국적 색깔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접근성에 있어 11일과 12일 양이틀에 걸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시리즈를 연주한 지안 왕은 대단히 세련되고 수준 높은 완성도를 일구어냈다.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 상하이 출신의 첼리스트 지안 왕은 개방 이전부터 서양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활동해온 아티스트이다. 1968년생으로 1980년 중국을 방문했던 아이작 스티엔에 의해 발굴된 것을 계기로 이후 예일대와 줄리어드에서 수학했다. 당시 제작된 음악 다큐멘터리 필름인 「마오에서 모차르트까지(From Mao to Mozart)」에는 당시 아이작 스티엔의 눈에 들어온 어린 나이의 지안 왕과 그보다 약간 성장한 피아니스트 공상동의 순진하고 재기발랄한 모습이 담겨 있다.

클래식 전문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 사는 일찌감치 중국의 시장성과 그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를 전속으로 받아들였으며 이후 솔리스트로서보다는 실내악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특히 1996년 국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브람스 트리오 음반은 자신보다 한 세대 앞선 선배 연주가인 오귀스탱 뒤메이(바이올린)와 마리아 호아오 피레스(피아노) 사이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중견들의 개성을 중재하고 받쳐주며 화합으로 유도하는 탁월한 중용의 미를 보여주었다.

일찌감치 미국으로 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안 왕은 다른 여타 중국 출신의 아티스트에 비해 고국과 동양의 정서가 훨씬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연주가라 할 수 있다. 이번 내

한 공연을 위해 들고 온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지난해 도이치 그라모폰 사에서 발매된 레코딩으로, 그러한 지안 왕의 국가적인 정서를 독자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낸 첫 번째 수확이었다.

지안 왕과 윈디 라-중국 고유의 음악적 시각을 감지한 연주자

20세기 후반 고전음악계에 불어 닥친 원전연주 운동의 영향으로 바흐의 이 작품은 ‘춤곡’이라는 본래의 의미와 형식이 훨씬 강조되어 해석되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젊은 연주자뿐 아니라 언더 빌스마와 같은 나이든 거장들조차 빠른 템포에 활달하고 역동적인 프레이징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든 지안 왕은 정반대로 정적인 연주를 시도했다. 템포와 상관없이 이례적으로 순수하고 조용한 미학을 추구하는 지안 왕의 해석의 기저에는 중국의 도가 철학이 깔려 있었다.

“나는 예술가로서 성장기였던 열여섯의 나이에 중국을 떠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중국과 미국, 이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합니다. 생각이나 시각 면에서 매우 미국화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국적인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바흐의 음악은 중국의 일상 철학과 상통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할 것, 희망하되 욕구하지 말 것,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 것 등, 이 모든 것은 이미 중국 철학에 들어 있던 메시지입니다. 독일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바흐의 음악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기에 그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내 방식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독일인이 아니라는 점, 또한 바흐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흐의 한자어 표기인 ‘巴赫’를 음반 재킷 디자인으로 삼을 만큼 과감하게 자국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의 음반 녹음은 12일 호암아트홀 공연에서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그러한 접근이 지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각 모음곡의 느린 파트에서 보여준 조심

스러우면서도 다정다감한 보잉, 빠른 패시지에서조차 분명하게 느껴지는 정적인 미학은 바흐와 중국의 철학이 한 명의 중국 아티스트가 연주하는 음악 안에서 우호적으로 어울리고 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작곡가의 의도를 분명하게 부각하고 실제적인 고증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그는 음악이 아티스트 자신의 가치관과 철학을 표현하는 매개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일깨워준 것이다. 지안 왕이 선사한 마지막 앙코르는 거리의 악사가 공후로 연주한 무명의 작품이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이 음악을 듣고 자랐던 그는 이날 첼로로 잔잔하면서도 멋들어지게 편곡 연주하여 중국 음악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자신의 국적에 담아 발산해냈다.

3월 18일과 19일 중국 아티스트로서는 마지막으로 찾아온 윈디 리는 앞선 두 케이스에 비해 한국에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대중적이고 또 가장 역동적인 차세대 주자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은 중국 본토 출신에 역시 피아니스트로 그보다 한 발 앞서 뉴욕으로 진출한 량랑과 함께 중국 젊은 클래식계의 위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중국에서의 교육만으로 2000년 열여덟 살의 나이로 쇼팽 콩쿠르 우승을 거머쥐며 피아노의 황태자로 떠올랐다. 이번 내한 공연에서도 쇼팽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했지만, 리스트와 쇼팽 등 비르투오시즘을 위한 레퍼토리에서 그는 유난히 두각을 나타낸다. 거의 오차를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한 기교도 그러하지만 윈디 리의 연주에는 기교를 넘어선 자유로움이 존재한다. 서양의 음악교육을 통해 똑같이 재단되고 잘려나간 유파파들의 기존의 가치관과 해석과는 다르게 다가오는 그의 음악은 아직 설익은 듯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을 발하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뉴욕 감각과 매너, 그리고 관객들의 취향을 습득하고 적용하고 있는 량랑과는 또 다른 보수적이고 순수한 일면이기도 하다. 때문에 주도적으로 밀려들어오는 중국 클래식계의 잠재력 안에 내포된 중국 고유의 음악적 시각을 감지하기에 이들 둘은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